

전주시보건소, 직장인 건강 혁신 서비스

6개월간 흡연·고위험음주율·비만유병률 등 개선 위해 통합적 건강관리

전주시가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직장인들의 건강 돌보기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김경숙 소장)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자회사 에스케이 네트워크 오앤에스(SK NETWORK O&S) 전주지사와 함께 '직장인 건강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장인 건강 혁신 프로젝트'는 에스케이 네트워크 오앤에스 전주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새끼배란·절주 편드와 금연·절주 편드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4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함께 6개월간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 비만유병률 등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가 사업 참여대상자의 건강 현황을 사전 조사한 결과, 흡연율 40.2%, 비만율 61.8%, 고위험음주율 66.6%,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18.2%로 조사돼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주시 성인남자의 평균 흡연율 36.6%, 비만율 34.3%, 고위험음주율 31.4%,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13.1%보다 높아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자치협의회 여성용품 성금 전달

전주시 33개동 주민자치위원회장들로 구성된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성정실)는 20일 전주시청을 방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에 써달라며 162만원의 성금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단체 교육과 개별 전문 상담, 6개월간의 추후관리, 한방침 시술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측에서는 파트별 책임제와 사내 파파라치 제도, 사내 건강 편드 등을 운영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전주시가 직장생활 등 업무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전주시보건소는

연교육과 후기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단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상담,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해 대상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지난해 이동금연클리닉이 운영된 총 19개 기관 672명을 포함한 흡연자 4390명이 등록, 이중 53.8%(6개월성공률)인 2380여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평소 보

건소 방문이 어렵고 술과 담배,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갖게 된 직장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전주시 사업체는 보건소 건강증진팀(281-6313), 이동금연클리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농식품부 종합감사 한농대 교직원 7명 비위사실 적발

인건비 허위 지급 3,700만원·여행경비 1,700만원 착복 등 총 1억 2천만원 회수조치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일부 교수들의 비위사실이 농식품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 대학 A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3,700만원을 착복했으며 또 다른 B교수는 여행경비 1,700만원을 사적으로 착복하는 등 한농대 교직원 7명의 비위가 드러나 총 1억여 원을 회수조

치 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13일까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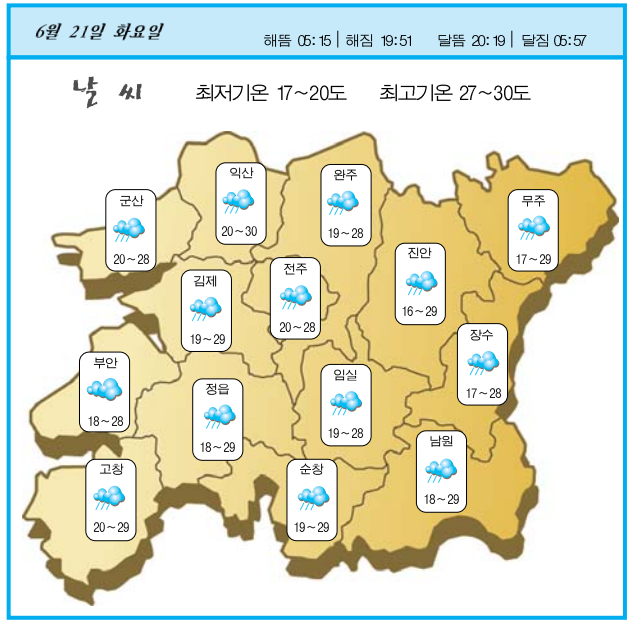
3년 만에 이뤄진 한농대 종합감사 결과 고발 3건(4명), 징계 5건(7명), 기관경고·주의 3건, 경고·주의 8건(20명), 시정 10건 등 총 56건이 적발

됐다.

회수금은 1억2천만원이다.

또 한농대 교직원 C씨는 기존 화성 캠퍼스 기숙사에서 사용할 침대 23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전할 전주캠퍼스 기숙사의 구조를 감안하지 않아 이전 후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침대구입비 1억2천7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고민형기자



완주교육청 청소년 동아리 지원 지도교사 협의회

완주지역 교육계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일 전북도교육청과 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지도교사 협의회를 이날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67개 동아리 740여 초·중·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분야 동아리를 체험하고 나아가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완주지원청은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혁

신교육특구구간을 맞이하는 11월 첫째 주에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을 통해 문화·공연, 전시·체험 등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제공과 더불어 자신이 공연하고 체험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활발한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동아리가 진행되도록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대 대학원생 탄소나노섬유 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톨렌드라케트리 대학원생(BIN융합공학과·지도교수 이종희)이 탄소나노섬유 관련 연구로 국제학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톨렌드라케트리 대학원생은 최근 인도 마이소에서 열린 응용소재공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탄소나노섬유 내용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우수논문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학술대회는 재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전세계에서 500여 편의 우수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 대학원생은 전기방사에 의해 카본 나노섬유를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산화나노 입자를 부

착하여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제작할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해 많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극은 기존에 비해 제조 공정이 쉽고 내부 저항도 낮은 반면 촉매 활성도가 높아 매우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을 나타냈다.

특히 탄소나노섬유를 이용해 비표면적을 넓히고 인시투 합성방법으로 바인더가 필요 없이 촉매를 증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기존의 슈퍼커패시터에 비해 획기적인 성능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에너지 저장 전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립서울시립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